

### 우리 문화재 보수는 우리 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필름 소장 고려화 등 보존처리

외국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시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월 17일 "독일의 필름 동아시아박물관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름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 2017년까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를 한다.

대상 문화재는 필름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를 포함한 불화 4점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백담도(白檀圖) 8폭 병풍 1점 등 모두 5점이다.

필름 동아시아박물관 소장품의 보존처리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2017년 3월까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조선시대 석가설법도(釋迦說法圖)를, 2단계로 2018년 10월까지 고려시대 비로자나삼존도(毘盧舍那三尊圖)와 조선시대 시왕도(十王圖)의 보존처리를 한다.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백담도 병풍은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 반입돼 오는 9월까지 보존처리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개최될 '도시미감-조선후기에서 근대까지' 기획전에서 일련에 공개된다.

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2011년 영국박물관 소장 조선불화 등 2점의 회화를 보존처리한데 이어 두 번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대부분이 외국 전문가에 의해 보존처리되면서 한국적 색채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전통이 바르게 이어지고 알려지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전통사찰 역사·식생·건축 '한눈에'

조계종, '한국의 전통사찰' 전수보고서 발간

전통사찰은 불교 수행과 신앙의 공간이자 건축·조각·회화·공예 등 유형 문화유산과 의례, 민속풍습 등 무형문화유산이 내재된 곳이다. 그만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전통사찰의 면모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전수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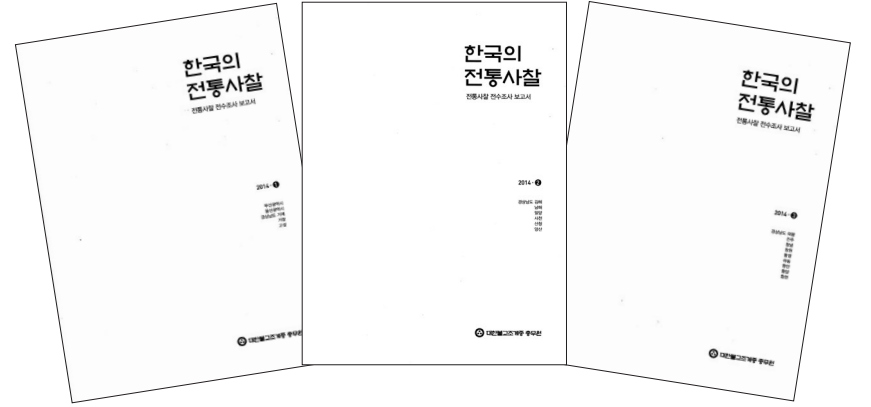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전수 조사 사업의 첫 보고서인 (한국의 전통사찰)을 발간했다. 총 3권으로 이뤄진 보고서에는 부산과 울산 비롯한 3개 광역시도 전통사찰 144개소가 지역별로 분류돼 수록돼 있다. 해당사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보니 3권의 분량만 2330페이지에 달한다.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통사찰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2014년부터다. 앞선 2013년에는 전수조사를 위한 예비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3권의 보고서는 2014년에 조사된 부산, 울산, 경남도 지역의 전통사찰에 대한 기록들이다. 1권에는 부산·울산·

경남 거제·거창·고성, 2권에는 김해·남해·밀양·사천·산청·양산, 3권에는 의령·진주·창녕·창원·통영·하동·함안·함양·합천의 전통사찰이 조사·소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사를 비롯해 건축, 식생, 성보, 부동



전수 조사 사업 첫 보고서 부산·경상권 전통사찰 망라 3권에 걸쳐 144개소 정리해 식생 조사 첫 실시 의미 커

산 등 해당 사찰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들이 수록됐다. 역사 부분에서는 사적비·중수비를 비롯해 각종 문헌자료를 정리해 연혁을 정리했다. 또한 설화, 의식, 인물, 사진 등을 함께 조사해 수록했다.

사찰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 가운

데 지정문화재는 물론 광복 이전과 이후에 조성된 성보문화재현황을 표로 정리했다.

건축 현황도 파악이 용이하다. 사찰 배치도의 경우 전자지도와 항공 촬영 이미지를 겹쳐서 배치 형태에 맞게 제작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을 사찰별로 수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각의 보존 상태와 보존 가치까지 정리해 향후 보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사찰 부동산 조사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는 물론 항공사진과 지적정보를 비교해 사찰 토지와 건물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사찰 주변 식생 조사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는 문화재 인식이 점(點)단위에서 면(面)단위로 확대됐음을 시사하며, 전통사찰의 전각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과 조경까지 주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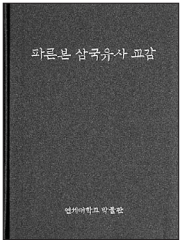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조계종은 "식생조사는 사찰림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조사, 경내 수목 중심으로 한 조경 조사 등을 시행했다"면서 "특히 사찰림은 주요 경관 및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방재 측면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가장 정교한 '삼국유사' 해설서 발간

연세대,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내보

고려 이체자 연구에 도움



기존의 <삼국유사>의 오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파른본의 해설서가 발간됐다.

연세대는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을 발간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파른본 <삼국유사>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던 손보기 교수가 소장해 오던 것으로 2013년 유가족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고, 2015년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866호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조선 초기본을 토대로 1512년(중종 7) 경주부에서 간행된 임신본 '삼국유사'가 활용되었는데 글자의 이동(異同)이 많은 편이다.

파른본은 이보다 앞선 조선 초기 판본으로 특히 파른본 '왕력'은 임신본의 착오와 혼란을 교정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많고 다양한 이체자(石, 災, 儉 등이 다른 글꼴로 판각됨)가 사용되고 있어서 고려시대 이체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삼국유사 조선 초기본은 학산본, 범어사본, 석남본, 니산본, 조정업본, 파른본 6종이 있다. 대부분 결락부가 있지만 파른본은 왕력, 권1, 권2에 결락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연세대는 "그동안 공개된 조선 초기본은 범어사본(권4, 권5) 뿐이었는데, 금번 파른본(왕력, 권1, 권2)의 공개는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파른본의 공개를 통해 임신본의 몇 가지 글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교정함으로써 번역이 달라지고, 그 결과 사회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고대사, 불교학, 서지학, 언어학, 민속학, 고전문학, 문자학 등 연구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불교평론 열리는단서 주장

18세기 등장한 아나키즘은 세계관·이론 등 불교와 유사 "아나키즘 핵심 상호부조론 붓다 연기론과 맥을 같이해"

아나키즘(Anarchism)은 일반적으로 '무정부주의'로 통용된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지배를 부정하고 의문에 불이려는 사상 조류다. 지배라는 행위를 상대화하려는 사상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이것이 사상적 조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다.

1960대를 지나면서 사라진 이데올로기로 인식됐던 아나키즘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각종 시민사회운동의 뿌리로서 아나키즘이 거론되고 있으며, 자치 공동체 운동, 아나키즘 문예론 등이 논의되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사진)가 2월 18일 불교평론 열



린단에서 불교와 아나키즘을 비교·해석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한 부분이다.

방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나키즘과 불교의 세계관, 지향 가치 등을 비교했다. 먼저, 다양한 아나키스트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자연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부타의 연기론과 연결했다. 아나키즘의 자연론적 세계관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사회적 조화 속에서 살 수 있기 위한 모든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자연론적 세계관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연기론"이라면서 "불교와 아나키즘 세계관의 공통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본다는 점이다. 나와 타인, 개인과 집단 등 삼라만상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나키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호부조론'에 대해 방 교수는 가장 적극적으로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이론임을 분명히 했다.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상호부조론'은 인류의 생존은 상호 협력에 의해 이뤄졌고, 갈등보다 협조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상호부조론에서 불교 자비사상의 체취를 흠뻑 느낀다"면서 "상호부조론은 붓다의 연기론의 변용이고 화엄사상의 한 지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호부조론은 붓다의 연기론과 자비사상이 완전한 동일 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키즘에 깊게 내재된 '공동체'에 대해서도 방 교수는 주목했다. 그는 "불교의 연기론과 자비 사상에서 보면 아나키즘의 공동체 정신은 붓다의 평등 사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오늘날의 정의나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 '재화의 공정 분배'에 치중돼 있다. 불교의 정치철학에서 평등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 주요 국보·보물에 방재 단말기 보급

6월까지 시범 도입 후 확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문화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탑재한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운영한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방재 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방재교육 자료 내려받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종래의 다른 재난현장에 보급되던 단말기가 비상사상 상황전파 기능에 집중했다면, 문화재 현장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평상시 안전점검, 순찰 등 예방관리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은 범주사 등 문화재 현장 10개소에 시범적용 후, 모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방재단말기 도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 13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성,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랑계작법 바라춤 - 오잡바라, 관옥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3월 9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 불교 예술 대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중 http://www.samgyeojong.org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련되어 있다.

- 범패·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통신 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크스님 "석문의법" 특강이 있습니다.
- ◇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개 강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 ◇ 교 수 진 : 활안 한정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 ◇ 출가수행, 사안,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 ◇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 부터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